

글로벌 빅파마, 비만 신약개발 속도 위고비·릴리 등 경구용 신제품 예고

주사제에서 경구용 제품 확장
환자 거부감 적고 유통 등 이점
부작용으로 인한 개발중단 사례도

주사 바늘로 찌를 필요가 없는 먹는(경구용) ‘위고비’가 이르면 올해 4분기 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기존 주사제에 비해 환자들의 거부감이 적고 유통도 쉽다는 이점 때문에 비만치료제 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가 높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3일(현지시간)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위고비(Wegovy)’에 대한 신약허가 신청을 수락했다. FDA는 올해 4분기 중 경구용 위고비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노보 노디스크는 25mg 경구용 세마글루타이드의 일일 복용 형태로 비만 또는 과체중 성인 중 최소 하나 이상의 동반 질환(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FDA 승인을 신청했다. 이 신청은 307명의 성인을 대상

으로 한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해당 시험에서 참가자들은 위약 대비 유의미한 체중 감소를 나타냈다. 발표된 임상 3상 결과에 따르면 위고비 투여군은 평균 13.6%의 체중 감소를 달성한 반면, 위약 투여군은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빅 파마들의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은 이제 주사제에서 경구용으로 옮겨 붙은 상황이다.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인 일리아 릴리가 연말까지 체중 관리 약물로 FDA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먹는 위고비와 릴리의 새로운 치료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달 일라이 릴리가 공개한 임상 3상의 탐라인(주요 지표) 분석결과에 따르면, 2형 당뇨병 환자 559명에게 40주간 36mg의 오폐글리프론 혹은 위약(가짜 약)을 하루 한번 투여한 결과, 환자들의 체중은 최대 7.3kg(7.9%) 줄었다. 반면 위약 복용군은 평균 1.6%(1.3kg) 감량됐다.

릴리는 내년 미국 식품의약국(FD

A) 승인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신약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미국 기업인 바이킹 테라퓨틱스는 먹는 비만 치료제 ‘VK2735’의 임상 2상을 준비 중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AZD5004’의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루슈는 ‘CT-996’의 임상 1상을 완료했다.

다만, 최근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한 경구용 비만치료제 개발 중단 사례도 나오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지는 지난 달 임상 2상 참여자 가운데 1명에게서 간 손상이 확인되면서, GLP-1 비만 치료제 ‘다누글리프론’ 임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화이자지는 지난 2023년에도 구토·설사의 부작용이 발생하며 임상을 한차례 중단한 바 있다.

암젠 역시 올해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인 AMG 513의 임상 1상 시험이 FDA의 임상 보류 조치를 받으며 개발을 중단한 바 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5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공개된 ‘핑크드림가든’에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 오른쪽)이 방문해 SPC그룹 허희수 부사장(왼쪽)과 함께 정원을 둘러보고 있다. /SPC 베스킨라빈스

SPC베스킨라빈스, ‘핑크드림가든’ 오픈

‘핑크스푼’ 재활용… ESG경영 박차

SPC 베스킨라빈스는 전날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내에 놀이 공간 ‘핑크드림가든’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 공간은 베스킨라빈스를 상징하는 ‘핑크스푼’을 재활용해 만든 것이 특징으로,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구성했다.

베스킨라빈스는 핑크스푼을 놀이 정원 구성 자재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수거를 진행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주요 광역시 소재 18개 베스킨라빈스 매장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해피포인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00명의 소비자로부터 핑크스푼을 전달받았다. 수거된 핑크스푼은 분쇄 및 재활용 과정을 거쳐 이번 놀이 정원 내 휴식공간과 바닥재 등에 활용됐다.

핑크드림가든은 총 네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다. 입구에는 브랜드 로고를 활용한 조형물이 설치됐고, 포토존에는 베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 맛을 형상화한 꽃 조형물이 자리잡았다. 휴식 공간에는 업사이클링된 테이블과 벤치가 마련되었으며, 놀이 공간에서는 오감 자극 콘텐츠(플레이볼, 드럼, 실로폰 등)를 경험할 수 있다.

한편, ‘핑크드림가든’은 베스킨라빈스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 ‘핑크드림 캠페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베스킨라빈스는 ‘31데이(매 31일 아이스크림 사이즈 업그레이드 프로모션)’ 행사 수익의 3.1%를 기부금으로 적립해 다양한 사회공헌을 전개하고 있다.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의 ESG경영 방침에 따라 2023년부터 진행해왔다.

/신원선 기자

정관장 “홍삼으로 혈당·체지방 관리하세요”

홍삼 원료 ‘GLPro’ 제품군 선택
식약처 혈당관리 기능성 인증

최근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혈당 조절도 중요한 일상 관리 항목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당뇨 전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고 있고, 젊은 세대에서도 혈당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식약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을 활용해 혈당을 관리하려는 수요도 늘고 있다.

이 가운데 KGC인삼공사는 자사의 홍삼 원료인 ‘KGC05pg’를 주원료로 한 혈당 관리 제품 ‘GLPro’를 선보였다. 이 원료는 인삼공사가 126년간 축적해온 연구개발 노하우와 전문 연구인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것으로, 기능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입증받았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KGC05pg 홍삼은 12주간의 인



GLPro(지엘프로) 더블컷 /KGC인삼공사

체 적용 시험을 통해 ▲공복혈당 ▲식후혈당 ▲당화혈색소 ▲GLP-1 수치 ▲인슐린 저항성 ▲당대사 지표 등 총 6가지 혈당 관련 바이오마커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 인증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홍삼이 혈당 조절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를 가진 원료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GLPro 제품은 사용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GLPro 코어’는 홍삼 외에 여주농축액 등 전통적으로 혈당 관리에 사용된 부원료를 더해 혈당 중심의 집중 케어를 돕는 제품이다. ‘GLPro 더블컷’은 혈당 관리뿐 아니라 체지방, 특히 내장지방 관리까지 함께 고려한 제품이다.

GLPro는 12주간 꾸준히 섭취하는 패키지 형태로도 제공되고 있다. 실제로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12주 패키지에서 발생할 만큼 소비자들의 꾸준한 복용 수요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패키지는 3주 단위로 구성된 4세트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사용자 편의성까지 고려한 점도 특징이다.

한편, GLPro는 출시와 동시에 혈당에 관심이 많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트렌드에 민감한 2030까지 사로잡으며, 출시 두 달 만에 40억 매출을 돌파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백종원 대표 “방송활동 중단… 경영 집중”

〈더본코리아〉

유튜브 통해 품질·위생 등 논란 사과

더본코리아백종원대표(사진)가 최근 불거진 품질·위생 관련 논란과 방송활동 논쟁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전방위 대책을 발표했다.

백 대표는 6일 유튜브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2025년을 ‘제2의 창업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백 대표는 “단 한 분의 점주님도 두고 가지 않겠다”며, 본사의 수익을 가맹점과 나누는 구조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점주를 “더본코리아의 동반자이자 가족”으로 규정하며, 이미 시행 중인 50억원 규모의 긴급 지원책에 더해 브랜드별 추가 지원방안을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발표는 최근 품질 문제, 위생 논란, 방송활동 중 태도 논쟁 등 연이



은 논란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뤄졌다. 백 대표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빠를 짊어주는 각오로 조직을 쇄신하고

기업 문화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방송인으로서의 활동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는 “상장기업 대표로서 방송활동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앞으로는 방송인이 아닌 기업인 백종원으로서 더본코리아의 경영과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오너 리스크와 브랜드 신뢰 추락 속에서 이탈 조짐을 보이는 점주들을 붙잡기 위해 더본코리아가 총력전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원선 기자

SK바사-질병청, 조류독감 백신 개발 착수

52.5억 공동 투자… 내년 임상 목표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할 국가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질병관리청(이하 질병청)이 주관하는 ‘우선순위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신속개발기술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차기 팬데믹 발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대비해 백신을 개발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포배양 기술을 활용해 독감, 코로나19 등의 예방 백신을 상용화한 기술적 역량을 인정받아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질병청과 초기 개발비 약 52억5000만원을 공동 투자한다. 이를 통

해 세포로 배양한 조류독감 백신 개발에 착수, 내년 하반기 임상 1/2상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안재용 사장은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키 위해 대한민국 정부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을 선도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차기 팬데믹에 대응할 기술력을 확보해 인류의 보건 수호라는 미션을 달성하고 나아가 글로벌 톱티어 백신·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신제품

LG생활건강 ‘아쿠아 밤 프로존’ 3종

LG생활건강은 허브 화장품 브랜드 빌리프에서 ‘아쿠아 밤 프로존’ 3종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아쿠아 밤 프로존’ 제품군은 피부에 수분과 냉각 효과를 전달하는 기능을 갖춰, 열감에 의한 자극, 붓기, 모공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이번 신제품은 기후 적응형 화장품으로 ▲아쿠아 밤 프로존 크림 ▲아쿠



빌리프 ‘아쿠아 밤 프로존’ 3종 /LG생활건강

아 밤 프로존 토너 ▲아쿠아 밤 프로존 모델링 마스크 3종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